

바라밀현장

‘금강메아리’ 대부도 ‘등지 청소년의 집’ 봉사

행복의 울림 전하고 싶어요

메아리는 산과 사람이 교감을 이루는 소리다. 산을 통해 사람을 배우고, 사람을 통해 산을 배우는 서울불교산악회 회원들은 그 아름다운 울림을 기억하며 산다. 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소리가기에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금강 메아리가 되기로 했다.

서울불교산악회 ‘금강 메아리’ (회장 공형수)가 그 단단한 울림을 세상 곳곳에 전하기 위해 나섰다. 8월 17일~8월 17일 오전 8시, 서울 동대문 옆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 앞으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건지, 색색의 양말박스서부터 멀치 박스에 이르기까지 양산에 쥐고 오는 짐도 다양하다. “등지집으로 출발해요. 갈 길이 바쁘니 어서 올라타요.”

격주로 전국의 명산을 찾은 금강메아리 회원들이 이날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있는 자연사 내 ‘등지 청소년의 집’.

오갈 데 없는 아이들 60여명이 크는 부처님의 등지다. 금강메아리는 2년 전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이곳을 다녀갔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다가, 십시일반으로 거둔 성금 100만원과 뜻대로

60여명 ‘등지가족’ 위해

성금, 생활용품 십시일반 준비

산 오르며 키운 팀워크로 일 척척

준비한 생활용품을 들고 다시 찾게 됐다. 휴일 하루를 ‘등지 점검’에 온전히 반납하려는 서원도 세웠다.

마침 아이들이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떠나고 없어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숨은 봉사는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일. 산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삼립훼손사업에 반대했으며,



▷대청소를 끝낸 한강메아리 회원들이 빨래를 널고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뜰날 때마다 환경과 관련된 언론 모니터링 봉사를 한 그들이다.

그렇게 자연을 보살피는 것이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아끼는 길이고 그게 바로 불법실천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 부처님의 말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마다 환희심이 일었다. 그렇게 넉넉해진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떠날 수 있었다.

“거사님들은 20개 방청소와 화장실 소독을 담당하고, 보살님들은 빨래 세탁과 불편한 아기를 목욕을 맡아줘요.”

김대원 사무총장(60)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원들이 곳곳으로 흩어진다. 마침 동산 불교대학 청년회 회원들이 봉사를 나와 대규모 봉사단이 결성됐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며 척척 맞아떨어지는 호흡. 험한 산을 오르며 키운 팀워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없다고 공형수 회장(60)이 귀띔한다.

“귀감이 되는 신행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났다. 흠여지는 친목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너트대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금강메아리가 되려고 한다.

김대원 씨의 말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산과 들을 진정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또한 음식의 식구들을 보듬어 온 그들이기 때문이다.

봉사를 끝내고 등지를 떠나는 회원들을 뒤로 하고 작은 차 한대가 그곳에 도착했다. 오늘부터 이곳에 등지를 틀 것인 야기인 모양이다. 포대기에 싸인 아기를 대하는 회원들은 한동안 말이 없다. 이름모를 들쭉이 피워올린 들꽃들을 바라볼 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야해.”

김경철 회원의 한 마디에 모두들 새로운 다짐을 한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을 지라도 해야할 것이 있다.’

강신재 기자 thalwhy@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툽텐 최된 (T)

여성 불자들 권익 옹호에 앞장

10여년 전부터 아시아와 서구의 비구니 스님들은 승단에서 비구니들의 위상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임을 갖곤 했다. 1996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서구 비구니의 삶(Life As a Western Buddhist Nun)’ 회의에서, 달라이 라마는 비구니에게 수계(비구니 계백)에 있는 것은 한국과 대만이 유일하다 등 계율 및 부처님 문제, 투표권, 수행처 확보 및 교육 문제 등 비구니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했다. 비구니 스님들은 달라이 라마로부터 비구니 계율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수행과 삶에 대해 토론했으며, 불교국가별로 계율과 전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툽텐 최된(Thubten chodron, 미국명 Cherry Green) 스님의 저서 <진리의 꽃들-비구니의 삶>



▷달라이라마의 제자인 툽텐 최된 스님.

와 수행, 수계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쉬라바스티(Shravasti) 사원들을 미국 등에 건립하는 일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 불사의 모언문을 통해 친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사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툽텐 최된 스님은 서구의 사원들이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여려 불자들과 마찬가지로 최된 스님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응용할 것을 강조해 온 최된 스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쉬라바스티 사원 건립 불사에 몰두

명료한 가르침 저서 통해 널리 알려져

(Blossoms of the Dharma: Living as a Buddhist Nun)에서는 세계 비구니 승단의 현황과 과제, 비구니들의 일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

“비구니로서, 여러분들은 불교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를 실현시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합이 증명했듯이, 불교 여성들이 낡은 구습의 속박을 벗어던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감격적입니다.”

최된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겔룩파(Gelukpa)에 속하는 단체인 FPMT(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 대승불교 보전재단)의 여성 최고지도자이다. 그가 최근 몰두하고 있는 불사는 남, 여 수행자들이 티베트 불교에 대한 공부

발휘했다. 그녀의 따뜻함과 유머, 명료한 가르침은 많은 저서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열린 가슴, 맑은 마음> (Open Heart, Clear Mind) <입문자를 위한 불교(Buddhism for Beginners)> <화날 때 일하기(Working with Anger)> <원숭이 마음 길들이기(Taming the Monkey Mind)> <진리의 꽃들-비구니의 삶(Blossoms of the Dharma: Living as a Buddhist Nun)> 등이 문서 포교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저서들이다. 최된 스님은 오늘날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는 한편, 자신과 제자들의 정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기도와 수행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대신심, 사물의 진실을 알려는 지혜 등 높은 차원의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승화시킵니다.”

김재경 기자

서원가로 부처님 마음 내세요

— 탐주심인당 중창단 매달 음성공양 —



▷경찰 불자들이 법회전 중앙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원가를 배우고 있다.

“음마니베를 백 번 천 번 외는 것보다 서원가(전불가)를 한 번 부르는 것이 부처님 마음을 내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18일 오후 6시 중앙경찰서 범우회 법회 현장. 매달 한 번 중앙경찰서 법회 진행을 돕고 있는 진각종 탐주심인당 신도 신은희 보살(41)은 음성공양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3년째 서울 중앙경찰서 법회도우미

이날도 신은희보살은 법회가 시작되기 전에 키보드 및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서원가 책자를 범우 수에 맞게 준비했다. 노래를 부르는 것과 염불을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씨는 “가사를 생각하며 일념으로 노래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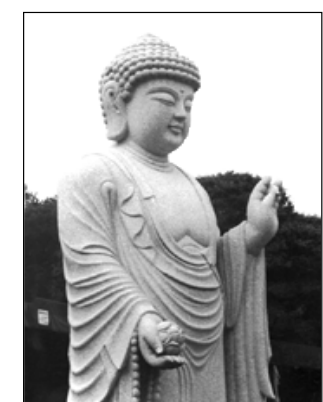
진각종의 ‘탐주심인당 중창단’을 이끌던 신씨가 중앙경찰서에서 서원가를 가르친 것

은 벌써 3년째. 대학에서 기악을 전공한 이 점을 살려 “배운 만큼 베풀겠다”는 서원을 세웠고, 우연한 기회에 중앙경찰서 법회 진행을 맡아 뜻을 이루게 됐다.

중앙경찰서 범우회 이재택 회장(41)은 “한 마음으로 법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원가 교육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가끔은 클라리넷, 바이올린 등의 연주도 곁들이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중앙경찰서 범우회는 10여년의 전통을 이어온 불자행동모임으로, 매달 셋째주 월요일 6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이와 함께 매년 추계 등산대회를 기획해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 오는 9월 26일에는 ‘탐주심인당 중창단’ 회원들과 함께 설악산 봉정암 등반에 나서 계획이다. 강신재 기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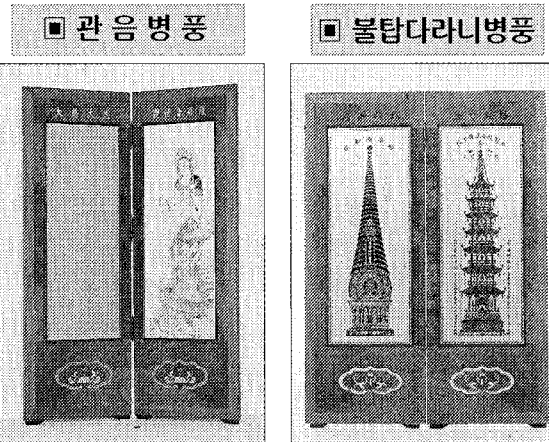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규격 (2폭) 높이: 153cm 폭: 120cm 무게: 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드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성지 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특징**
- ①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에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 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 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용결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④ 카드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 직접보여 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⑤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함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⑥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기한 자녀들의 집에 한문씩 놔두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